

# 중국, 천연가스 공급부족 심화

생산이 수요 따라가지 못해 ... 최근 흑한으로 부족현상 심화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흑한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나 생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관영 China Daily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 천연가스 생산이 전년대비 7.7% 증가한 830억m<sup>3</sup>에 달했으나 소비는 11.5% 늘어난 874억5000만m<sup>3</sup>로 부족분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00년부터 천연가스 생산증가율이 소비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로 흑한이 몰아치면서 가스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08년에는 760억m<sup>3</sup>의 천연가스를 생산했으나 소비는 807억m<sup>3</sup>에 달해 약 50억m<sup>3</sup>를 수입했다.

중국은 총연장 7000km인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관이 2010년부터 전면 개통돼 서부지역의 천연가스를 동부로 운송하기 위한 서기동수(西氣東輸)와 연결되기 때문에 천연가스 수입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관이 Xinjiang에서 서기동수 1기 및 2기 구간과 연결돼 중국 동부와 중부는 물론 남부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16>